

東南亞의 이슬람 : 歷史와 現況

양 승 윤*

<目 次>

- I . 東南亞 이슬람研究의 重要性
- II . 東南亞 傳播 以前의 이슬람
- III . 東南亞 이슬람社會의 發展過程
- IV . 東南亞 各國의 이슬람 現況
- V . 結 語

I . 東南亞 이슬람研究의 重要性

이슬람은 동남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회세력이자 정치적 세력이다. 이슬람교는 브루나이 술탄왕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교이며, 세계 제5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90퍼센트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는 버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 소수가 아닌 상당 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다. 동남아 전 지역에 걸쳐 무슬림 수는 최소 2억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동남아를 구성하는 10개국의 총 인구를 4억 3천 만명(1990년)으로 볼 때 역내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북 아프리카로부터 남아시아에 이르는 전통적인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동남아는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동남아의 무슬림들이 지리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이슬람 중심부인 中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변부에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슬람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정신적 신앙심은 깊고 정열적이며, 그리고 세계 어느 지역의 무슬림에 못지 않은 신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동남아의 무슬림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사회를 특징지워 온 이슬람화 진행과정에서 언제나 개방적이

* 한국외대 교수

고 수용적이었다. 다른 지역의 무슬림 사회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무슬림들에게 미치는 변화에는 언제나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의 가장 고귀한 이상과 신앙심에 대한 추구는 상당수의 동남아 무슬림들 마음 속에 계속해서 깊게 자리를 잡아 왔다.

그러나 동남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통일체가 아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한결같이 다양한 복합민족으로 구성되어 이질적인 민족문화의 갈등이 언제나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질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이질적인 동남아 복합민족을 통합하고 종족 간의 세력균형에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것조차 완전한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외관상으로 동남아 무슬림들은 종교적 통일성과 무슬림 사회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문화적 배경과 상이한 언어와 서로 다른 종족으로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침해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있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남아의 무슬림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이슬람의 '종교적 형제애'를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슬람의 궁극적인 국가목표인 政教一致와 神法統治國家가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시민권 부여와 관련된 요구에 따라 종종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의 이질적인 민족문화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무슬림 사회의 발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들 동남아 무슬림들이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직면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등의 초보적인 論題에서도 동남아 이슬람연구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II. 東南亞 傳播 以前의 이슬람

1. 이슬람의 탄생과 움마의 성립과정

동남아의 이슬람은 이슬람의 발상지 메카(Mekah : Mecca)로 부터 전래된 것이다. 이슬람은 근원적으로 정치와 종교가合一된 개념의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비(非)이슬람 국가에서와는 달리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슬람이 동남아에 전파되고 발전해 온 과정에서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원래의 종교적 성격이 적지 않게 변화되었다.

이슬람국가의 역사는 무함마드(Muhammad)의 시대로 부터 시작된다. 무함마드는 AD 570년 경 메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후 聖地 메카로부터 메디나(Medina)로 聖遷한 AD 622년을 이슬람역사¹⁾의 元年으로 삼고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추종자를 규합하여 이슬람공동체인 움마(Ummat)를 건설하였다. 무함마드는 전쟁의 수단으로 또는 우호조약 체결을 통하여 메카 주변에 산재해 있던 많은 군소 부족과 이들의 지역을 통합하거나 평정하여 짧은 시일 안에 그를 추종하는 무슬림은 아라비아반도의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무함마드가 건설한 움마는 이로써 국가적인 정치체제로 발전하여 결국 이슬람국가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창시해서 전파한 이슬람의 창시자로서 종교지도자일 뿐만아니라 움마라는 원시 이슬람국가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종교와 정치의 이중적인 지위가 칼리프제도(Caliphate System)의 시초가 되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창시한 이슬람교를 통하여 아라비아반도에 산재해 있던 아랍민족을 통합시켰을 뿐만아니라 움마를 건설함으로써 종교(이슬람)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슬람교는 초기 부터 정치적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사상이 국가의 기반이 되었다. 이슬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정치적 세력의 확대를 우선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함마드의 사후 그의 후계자들에 의한 영토의 팽창은 “꾸란과 칼”의 等式에 따라 급속한 이슬람 전파를 동반하게 되었다.

2. 칼리프제도의 확립과 이슬람의 융성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히즈라 10년인 AD 632년에 死去하고 아랍부족장의 선출방법에 따라 그의 장인인 아부 바끄르(Abu Bakr)가 후계자가 되었다. 움마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아부 바끄르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 초대 칼리프(Caliph)가 되었다. 칼리프제도는 무함마드 시대의 원시적인 이슬람 공동체를 국가적인 통치기구로 조직화한 것으로서 칼리프의 위치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따

1) 메카에서 메디나로 성전한 것을 히즈라(hijrah)라 하여 이슬람력(曆) (Hijrah曆이라 함)의 원년으로 삼는다. 히즈라는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비협조·비폭력운동 또는 외세에 대한 무저항운동도 모두 히즈라라 칭한다.

라서 아부 바끄르의 위치는 정치적으로 통치자인 동시에 이슬람의 首長이기도 했다. 아부 바끄르에 의한 칼리프제도의 확립은 아랍세계의 정치체제로 확정되어 이슬람 역사의 場에 등장하게 되었다. 칼리프제도의 확립은 이슬람과 정치의 통합을 제도화하여 국가와 종교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결정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슬람세계의 祭政一治와 神法統治國家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칼리프제도는 아랍세계에서 확립되었지만 그 제도가 포용하고 있는 강한 종교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非아랍권 국가인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서도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18세기까지 칼리프의 칭호가 채택되고 있었다.²⁾ 인도네시아의 경우, 족자카르타(Yogyakarta)의 술탄은 '알라의 칼리프(Caliph Allah)'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고, 칼리만탄(Kalimantan) 동부의 쿠타이(Kutai)와 빠시르(Pasir) 지역에서 이슬람의 首長은 '신도들의 칼리프(Caliph Almunin)'로 불리우고 있었다. 한편, 말루쿠 군도의 띠틀레(Tidore)에서는 '至高한 칼리프'라는 뜻을 가진 칼리프 알무아잠(Caliph Almuazzam)의 칭호가 통용되었으며, 수마트라(Sumatra)의 벵쿨렌(Bengkulen)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이 움마의 수장을 칼리프로 호칭하였다.³⁾ 이 제도는 이슬람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정통의 통치체제로 삼아 왔고, 오늘날에도 정통 칼리프시대(AD 632-661)를 이슬람적 통치체제의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대의 통치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고 있다.⁴⁾ 따라서 이 제도는 중동 이슬람세계의 범주를 벗어나 이슬람세계의 공통된 제도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이슬람국가들의 공동체의식과 유대감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무슬림 국제사회의 동질화 현상도 가져왔다. 이슬람국제기구(OIC)는 이러한 동질화 추구의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다.

칼리프라는 칭호는 또한 이슬람국가의 다른 어떤 國家首長의 칭호보다도 정치와 종교의 양 대권을 한 손에 쥐고있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칭호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

2) N. B. Hooker, *A Concise Legal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 Press, 1978), p.72.

3) Thomas W. Arnold, *The Calipha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p. 181.

4) E. I. J. Rosenthal, *Islam in the Modern National State*(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5), pp. 86-89.

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주인 칼리프는 여타의 전제군주제도에서 볼 수 있는 세습제의 군주와는 상이하게 움마 또는 움마의 형태를 갖춘 합의체에 의하여 선출되며 군주 역시 움마의 구성원인 국민과 똑같이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규제를 받는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후 우마이야(Ummaiyya)왕조(AD 661-750)와 압바시아(Abbasiyya)왕조(AD 750-1258)를 거쳐오는 3-4세기의 짧은 기간동안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와 전 중동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이베리아(Iberia)반도를 석권할 만큼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이슬람은 10세기 경에 이르러 3대륙에 걸쳐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으며 “이슬람의 꽃”으로 불리우는 찬란한 압바시아 문화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거대한 이슬람세계의 창조는 생존조건이 열악한 아라비아 사막을 중심으로 힘 가진 자를 상징하는 ‘칼’과 움마의 형성과 질서를 웅변하는 ‘꾸란’으로 斷乎性和 包容力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수레바퀴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압바시아 문화는 같은 시대의 그리스 문화와 충돌하여 잦은 문화적 마찰이 있었으나 이 두 문화를 함께 포용하려는 무슬림학자들의 무단한 노력과 이슬람문화 특유의 융화력으로⁵⁾ 이를 극복하였다.

3. 이슬람제국의 붕괴

거대한 이슬람제국도 영토가 너무 광대하고 중앙정부의 내분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칼리프는 중심부인 아라비아 지역만 제대로 통치할 수 있었고 기타 지역은 중앙통치권의 약화로 지방의 총독, 군사령관, 토호 등 지방 세력가들이 독재하여 제각기 칼리프와 대등한 지위를 표방하는 지방단위 정권이 속출함으로써 영토는 급속도로 분열되었고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통치조직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슬람세계의 이러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은 2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고 이슬람 종교 자체도 성숙되는 과정에서 많은 宗派와 學派가 생겨났다.

5) 서양의 정치사상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어서 政教分離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단순한 신앙체계가 아니라 종교·정치·문화가合一된 생활양식으로서, 인간이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자 인간존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조화스러운 전체(harmonious whole)라고 설명한다. 즉, 종교적인 면과 세속적인 양면을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가 이슬람이다. 손 주영, “셰이크 알리 압둘 라지프의 논저 『이슬람과 통치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9호(서울: 한국중동학회, 1988), p. 6에서 재 인용.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하였을 때는 수많은 부족을 단합시키는 교리로 작용했으나 신학적 체계는 아직 미숙한 단계였다. 더구나 광대한 대륙의 정복과 함께 이슬람이 포교되었으나 각 지역에 정착되어 있던 기존 전통 및 토착종교와 부딪쳐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그 지역의 종교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이슬람의 성격 또한 나뉠대로의 틀을 잡아 나갔다. 시리아 지역에서는 그리스적인 기독교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이라크에서는 신비주의를 통하여 진리를 구하려는 사상에 몰들기도 하였다. 페르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종래의 拜火教에서 출발한 二元論적인 이슬람이 싹트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의 발상지인 메카와 메디나에서는 사색적인 행태보다 무함마드와 같은 시대의 독실한 무슬림들과 같은 실천적인 이슬람운동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주류파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다. 주류파는 순니(Sunni)파라고 불리워졌는데, 이에 대응하는 비주류파는 쉬아(Shia)파였다.⁶⁾ 쉬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시하여 비혈통의 무슬림이 칼리프가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라도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우수한 무슬림은 누구라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는, 즉 이슬람종교를 혈통보다 중시하는 생각을 가진 순니파가 형성되었다.

쉬아파는 혈통의 순결성에 대한 고집과 적대세력에 대한 박해로 극심한 분파현상을 겪었으나, 순니파는 쉬아파의 폐쇄적인 신앙을 부인하고 이슬람을 보편화하여 무슬림은 누구라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는 개방주의적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서 순니파는 많은 무슬림을 포용하게 되었고 당연히 분파현상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순니파는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아랍국가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무슬림의 85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쉬아파는 주로 이란(95퍼센트), 이라크(50퍼센트)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이슬람

6) 순니파와 쉬아파의 분파역사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마이야 왕조(661-750)가 세워지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제 4대 칼리프 알리(Ali)와 우마이야의 시조인 무아위야(Muawiya)가 격돌한 싹핀 전투(657)이고, 다른 하나는 우마이야 왕조 2대 칼리프 야지드가 보낸 군사에 의해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카르발라 참극(658)이다. 첫 사건을 계기로 우마이야 왕조가 일어나고 이슬람 최초의 분파인 카와리지가 탄생하며, 두번째 사건은 쉬아파의 단결을 촉진시켜 우마이야의 칼리프제도를 부인하는 쉬아 이맘(imam)직제 출현의 동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10퍼센트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 아랍세계의 결정적인 퇴조는 1258년 몽고 대군에 의한 바그다드 함락이 분기점을 이루었다. 이슬람제국의 심장부를 강타당한 무슬림들의 충격은 대단히 컸고, 이슬람 신학과 법학을 비롯한 모든 학파와 이슬람교의 中心勢가 아라비아반도에서 外地로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뿐만아니라 이제까지의 주된 종교적 경향을 벗어난 수 많은 수피(sufi)들이 등장하였다.⁷⁾ 이들 수피들은 독자적인 수피사상(Sufism)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경향으로 부터 내면적인 신앙의 토대를 쌓아 이슬람의 재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수피들이 중심이 된 아랍 무슬림들은 이슬람 정통교리와 함께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으며, 이와같은 시기에 동남아로 진출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推論이 가능하게 된다.

III . 東南亞 이슬람社會의 發展過程

1. 식민통치 이전 시기

(1)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아랍과 인도의 무역상들과 군도 지역의 토착인들과의 상호 왕래는 이슬람 도래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AD 5세기 경에 이르러 말레이 반도의 몇몇 주요 항구는 이미 중국 대륙과의 교역을 이루는 중요한 기항지가 되었다. 7세기에 들어서면서 막강한 制海權을 가진 스리 비자야 (Sri Vijaya) 불교왕국이 수마트라에 출현하여 말라카(Malacca)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항(무역지대)으로써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 무역활동에 무슬림 상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11세기에 이르러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의 중요 무역도시에 무슬림들이 정착하였다는 증거가 있다.⁸⁾

7)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자들 일컬음. 이들은 禁慾이나 自己虐待를 부정하는 이슬람사상에 어긋나게 고행과 방랑과 금욕을 통하여 알라와 자신의 合一상태에 이르러자 求道의 고행을 함. 몽고 대군의 아라비아반도 함락으로 사회가 어지럽고 정치가 혼란해지자 수피가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suf'는 양털로 조약하게 짠 옷감을 말하며, 'sufi'는 suf를 걸친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 자바 무슬림 중에서도 수피사상(Sufism)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8) S. Q. Fatimi, *Islam Comes to Malaysia*(Singapore: Malaysian Sociological Research Institute, 1963), pp. 66-69.

그러나 말라카 왕국의 세력이 강화된 이후 비로소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의 이슬람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⁹⁾ 말라카 왕국은 짧은 시일 내에 아루(Aru), 페디르(Pedir), 람브리(Lambri)와 같은 지역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통치하기 시작했다. 캄파르(Kampar), 인드라기리(Indragiri), 시악(Siak), 잠비(Jambi), 벵갈리스(Bengkalis), 리안(Rian), 링가(Lingga) 등의 지역이 새로이 말라카 왕국에 복속되었으며, 힌두 불교문화를 먼저 받아들였던 수마트라도 역시 점차로 이슬람화 되었다. 말레이 반도의 빠항(Pahang), 팅따니(Pattani), 케다(Kedah), 조호르(Johor)와 말라카 왕국 주변의 군소 왕국들도 점차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¹⁰⁾ 그 결과 말라카로부터 자바 북쪽 해안까지는 말라카의 영향력 하에 쉽게 이슬람화 되었다. 1478년에는 중동부 자바 내륙의 마자빠히트(Majapahit) 왕국이¹¹⁾ 말라카의 영향력하에 들어간 데막(Demak) 왕국이 이끄는 무슬림 연합에 의해 붕괴되었다.¹²⁾ 이슬람 데막 왕국은 곧 칼리만탄(Kalimantan) 남부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 일대를 이슬람화시켰다. 향료군도(Spice Islands)로 알려졌던 말루쿠(Maluku)는 1498년까지 이슬람화되었다.

민다나오(Mindanao)섬은 1460년 이전에 이슬람화 되었으며,¹³⁾ 브루나이는 이보다 앞서 15세기 말경에 이미 이슬람을 수용하였다.¹⁴⁾ 이슬람은 술루(Sulu)와 민다나오로부터 필리핀 북쪽의 루손(Luzon)지역까지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해안과 농경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정착하였다. 1570년 스페인에 정복되기 이전까지 마닐라(Manila) 역시 무슬림 영향하에 있었다. 또한 브루나이 술탄들도 세력확장에 나서 주변 지역의 이슬람화에 착수했다. 이슬람으로 막 개종한 마카사르(Makasar)는 부기스(Bugis)와 슴바와(Sumbawa), 롬복(Lombok) 섬 주민들

9) D. G. E. Hall, *A History of Southeast Asia*(London: Macmillan, 1981), pp. 221-235.

10) 여기에 나오는 지명은 모두 말레이 반도에 있는데, 팅따니는 현재 태국의 영토에,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의 영토에 속한다.

11)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왕국으로 힌두 불교문화를 꽃 피웠다. 인도네시아 國章에 등장하는 상상조 가루다(Garuda)도 힌두교에 등장하는 '번영의 신(神)' 위스누(Wisnu) 혹은 Visnu가 타고 다녔다 한다.

12) Hall, *op. cit.*, p. 230.

13) Hall, *op. cit.*, p. 198.

14) Cesar Adib Majul, *Muslims in the Philippines*(Quezon: Univ. of the Philippines, 1973), pp. 72-73.

을 차례로 개종시켜 나갔다. 이슬람을 수용한 부기스는 또한 이를 곧 플로레스(Flores)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자바 전체가 점진적으로 이슬람화 되었지만,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유일하게 발리(Bali)만이 많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전통적인 힌두-불교 왕국으로 남게 되었다.¹⁵⁾

臣民들의 이슬람 수용은 그들의 의식세계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 문화와 정치의 변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제까지 군도 정치의 특징을 이루어 온 힌두-불교적 전통은 꾸란과 그 밖의 다른 이슬람적 교리에 바탕을 둔 제도와 관습으로 대체되었다. 이슬람적 통치자 개념이 '神王(devaraja)'이라는 힌두교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되었으며, 또한 무슬림들의 경어와 직함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비록 선별적이긴 하지만 샤리아(Syariah; 이슬람 율법)는 이슬람이 국교로 채택된 직후부터 시행되었다. 말라카 왕국의 법률(Undang-undang Malaka)은 샤리아의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말라카 왕국의 통치는 반드시 꾸란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¹⁶⁾ 또한 1303년으로 기록된 트렝가누(Trengganu)에서 발굴된 비문은 분명히 그 국가에서 샤리아가 엄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팅파니에서는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이슬람 율법을 집행하였다. 빠항의 초기 법률은 전체 68개 조항 중 42개 조항이 이슬람 샤피이(Shafii)학파¹⁷⁾의 법률 조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아체(Aceh)¹⁸⁾의 경우 이슬람 율법의 집행이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훨씬 철저했다. 이 지역에서 이슬람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당시 군도를 지배하고 있던 무슬림 상인들의 높은 지위로 인해서 더욱 컸다. 또한 이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무역과 상업에 대한 통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인도와 유럽 그리고 중국 등지를 잇는 국제무역 또한 확실하게 무슬림들의 수중에 있었다. 국제무역 독점 이외에도 주요 무역항은 모두 그들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무슬림들은 경제적으로 부동의 위치를 점하여 갖가지 부를 누렸으며, 나아가서 학문적 소양을 갖게 되었다. 지방 토호와

15) M. Ariff, *Islamic Banking in Southeast Asia*(Singapore: ISEAS, 1988), p. 7.
 16) Lain Yock Fang, *Undang-undang Malaka*(the Haque: Martinus Nijhoff, 1976), p. 163.
 17) 이슬람의 4대 법률학파의 하나임. 샤피이 이외에도 하나피(Hanafi), 말리키(Maliki), 한발리(Hanbali) 법률학파가 있음. 동남아 이슬람은 주로 샤피이(Shafii)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관한 사항은 양 승윤, 『인도네시아 政治論』(서울: 명지출판사, 1990), pp. 2-5 참조.
 18) 수마트라 북단의 인도네시아 행정구역의 하나로 무슬림들의 아성임. 동남아의 메카로 불리는 지역임.

일반 통치자들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대변혁인 동시에 확실한 활로였다. 이슬람 개종은 이로써 무역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이슬람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수피(sufi)들의 역할 또한 매우 컸다.¹⁹⁾

이슬람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기존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들이 강조하는 동료애 사상은 점진적으로 이 지역의 이슬람화 된 사람들의 공통된 문화의 저변에 나타났다. 이슬람화가 야기한 인류 평등주의 사상의 발아는 이 지역에서 귀족정치에 대한 옹호세력을 약화시켰다. 이슬람 학문 전통은 움마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무슬림들은 꾸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슬람 율법 학습을 통해서 이슬람 근본원리사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랍 문자가 소개되었는데, 이 문자는 아찌에서 민다나오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²⁰⁾

많은 地域語가 부족한 아랍어 표현을 위해서 보강되었다. 특히, 말레이어는 이슬람 종교교육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리고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곳곳의 지역어로 채택되었다. 또한 말레이어는 이 지역언어 통합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문학, 신학, 법률, 역사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말레이어로 된 상당수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빠사이(Pasai)²¹⁾에서 말라카, 아찌, 팡파니에 이르는 많은 지역이 유명한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학문의 중심지로 등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 교육체제는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머스짓(mesjid; 이슬람사원)은 학문의 중심지로 제도화 되었다. 곧 이어 자바의 빠산뜨렌(pesantren)이나 말레이 반도의 뿐독(pondok)과 같은 유사한 독립된 교육장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²²⁾

이 지역의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는 당연히 국제 이슬람과 접촉하게 되었다. 매키카로의 성지 순례여행이 무슬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순례여행을 통해서 중동의 무슬림들과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지적 유대관계를 쌓아가게 되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로 아랍인들의 이주가 장려되었다. 아랍 이슬람 학자

19) 양 승윤, 앞의 책, p. 14.

20) Ariff, *op cit.*, p. 8.

21) 수마트라 북단 아찌 부근의 지명으로 동남아 이슬람사 초기에 이슬람화된 지역.

22) 빠산뜨렌이나 뿐독(도두막집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書堂에 해당되는 곳으로 주로 이슬람의 교리를 가르치던 곳임.

들의 지도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장려해 온 이슬람 학습의 강조는 오래지 않아서 이 지역에서 이슬람 교육을 전담하는 울라마(Ulama)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종교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는 짧은 시일 내에 이 지역 무슬림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으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알라(Allah)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토착적인 신앙 요소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었다.

(2) 태 국

태국에서의 이슬람은 주로 무슬림들이 개설한 국제무역 접촉을 통해서 13세기에 최초의 통일왕국을 세운 수코타이(Sukhothai)왕실에 새로운 종교로의 존재를 인식시켰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수코타이 왕국을 승계한 아유타야(Ayutthaya)왕국이 세워진 14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치의 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동안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의 이슬람화 과정과 해상무역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선도해 온 것이 국제무역이었던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종교를 아유타야 왕국과 가깝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도 국제무역에 의한 유럽과 중국대륙과의 교류와 이에 부수되는 새로운 문물과의 접촉이었음에 틀림없다.²³⁾

아유타야 왕국에서 무슬림들이 지배계층에 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는데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궁성의 관리나 고위급 신하로써 태국 왕을 섬긴 사실로 알 수 있다. 태국 왕실에서 자신들의 중요한 역할과 이슬람 종교의 교류와 접촉이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무슬림들은 아유타야 왕국에서 매우 강력한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무슬림들은 쉽게 왕실의 심임을 얻었다. 이것은 아유타야 왕국에서 무슬림들이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시대의 많은 경제적 이익들이 태국 왕실의 비호 아래 어떻게 싸얌(Siam)만에서 말레이 반도를 거쳐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무역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무슬림들에게로 돌아갔는지를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무슬림들은 말레이 반도를 경유하는 무역로에 대한 통제권 뿐만 아니라 아유타야 왕국에서 몇몇 주요 관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무슬림들은 아유타야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병역제도를 채택을 권유하였고, 새로운 병역제도가 생겨남

23) Ariff, *op. cit.*, pp. 8-9.

으로써 왕국은 무슬림 세력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3) 버마

버마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슬림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였다. 수치상으로는 버마족에 비해서 열세에 있었지만, 무슬림들은 국제무역, 상업, 외교, 행정, 정치, 언어, 문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버마에는 9세기에 이미 무슬림 항해자가 도착한 증거가 있다. 그 한 예로, 이미 AD 860년에 중국인 여행자들이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페르시아화(化)한 무슬림들의 통치지역을 발견하였다. 이즈음의 페르시아 여행가인 이븐 코르다베(Ibn Khordabeh)와 9세기 경의 아랍 여행가인 스텔레이만(Suleiman), 그리고 10세기 페르시아 여행가인 이븐 알 파키(Ibn Al Faqih) 등이 남긴 글 속에는 버마 남부지방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10세기에 아랍 역사가인 알 마그디시(Al Magdisi)는 버마가 인도와 말레이 군도, 그리고 실론(스리랑카)과 함께 발전한 단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버마 역사에는 아노르타(Anawratha; AD 1044-77)왕 통치기간 동안 왕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아랍인에 관한 기록이 있다. 아노르타의 승계자인 솔루(Sawlu; AD 1077-88)왕은 아랍 무슬림 교육을 받았으며, 솔루 왕은 그의 아랍인 선생의 아들인 야만 칸(Yaman Khan)을 현재의 버구(Pegu)지역인 당시의 우사(Ussa) 총독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²⁴⁾

동남아에서 무슬림들의 의한 국제무역 주도권이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경까지 여러 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의 기항지 역할을 해 온 버마의 해안 도시들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던 무슬림들의 새로운 세계 무역로를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하였다. 유럽 열강들이 적극적인 식민지 확장정책에 나섬에 따라 무슬림들의 국제무역 패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을 당시에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갔다.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무역 뿐만아니라 선박건조와 수리에 탁월한 솜씨를 보였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무슬림 통치자들과 이슬람화된 고위 행정관리들이 당시(17세기) 버마의 메르구(Mergui)에서 태국의 아유타야에 이르는 거의 모든 주요지역을 관할했었다. 버강 밍(Pagan-Min; 1846-53)왕 통치기간 동안에 한 무슬림은 당시 왕국의 수도였던 아마르뿌르(Amarapura)의 총독으로 임명

24) Moshe Yegar, *The Muslims of Burma: A Study of a Minority Group*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p. 2.

되어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막강한 통치권력을 누린 바 있다.²⁵⁾

아라칸(Arakan) 지역에서는 인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인도 대륙과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교류와 함께 다방면에 걸친 인적 교류가 있었다. 무슬림의 영향력은 아라칸의 고위 불교 승려들이 무슬림의 명칭을 따를 만큼 강하였다.²⁶⁾ 불교 왕국이었지만 무슬림들은 아라칸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15세기 이후로 아라칸의 역사는 점차로 무굴제국으로 향하였다. 17세기 중반부터 1785년까지 아라칸 왕국이 버마에 의해 재합병되었을 때 까망(Kaman) 통치하의 아라칸에서 무슬림들의 지위는 어느 누구로 부터도 도전받지 않았다. 18세기에 버마 왕실은 이곳 아라칸으로 무슬림 죄수들을 많이 이주시켰다. 1873년 중국 황실에 의해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에 있던 이슬람 영지가 붕괴되자 다수의 중국인 무슬림들이 새로운 도피처를 찾아 버마 북부 쪽으로 쫓겨갔다.²⁷⁾ 18세기와 19세기 초엽에 이미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버마의 주요 도시에 살고 있었다. 1885년에 만달레(Mandalay)에 있던 버마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 까지 무슬림들은 버마 왕국의 보호 아래 크고 작은 國事에 깊이 관여했었다. 이들 무슬림들은 영국이 버마를 식민통치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한 집단 중의 하나였으며, 버마에 대한 영국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정치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도 정열적으로 참여했었다.²⁸⁾

(4) 캄보디아

버마나 아유타야 왕국과 같은 불교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왕국도 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국제무역과 정치발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국제무역 장악은 캄보디아 왕국으로 하여금 이슬람 세력과의 관계강화에 나서게 하였다. 영토확장에 국력을 쏟고 있던 캄보디아 왕국은 캄보디아 동쪽과 베트남 중부 이남에 크게 국세를 확장하고 있던 쟁파(占婆: Champa)국을 통합하였다. 쟁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일찍 무슬림의 영지가 된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 무슬림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쟁파 지역은 정통 이슬람을 추

25) Yegar, *op. cit.*, p. 10.

26) G. E. Harvey, *Outline of Burmese History* (Calcutta: Orient Longman, 1954), p. 52.

27) Yegar, *op. cit.*, p. 46.

28) Ariff, *op. cit.*, p. 10.

구하는 상당 수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의 여러 지역, 특히 말레이 반도 동부해안의 군소 왕국들과 폭 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왕국의 무슬림들은 다른 지역의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은 다른 지역의 정통 이슬람주의자들 못지 않게 강렬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요인들이 17세기 초에 성공적으로 캄보디아 통치자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게 되었을 것이다.²⁹⁾

통치자들의 개종은 캄보디아에서 무슬림 사회의 지위와 우월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주변국가와의 계속된 경쟁관계는 캄보디아의 무슬림 지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 더 이상 지배계층으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이슬람 역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배 엘리트들에게 쉽게 파괴되어 갈 수 없었다. 일단 왕궁 반란은 캄보디아에서 잦았던 무슬림 통치를 곧 종결시켰다. 그리고 계속된 유럽열강의 공략으로 이곳에서 무슬림들의 역할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로써 이 지역 무슬림의 캄보디아 지배 가능성을 종식시켰다.

2. 식민통치 시기

(1) 서구열강의 동남아 내도

포르투갈인들이 서양의 열강들 중에서 최초로 향료무역 독점과 포교를 목적으로 말라카를 향해서 동진(東進)해 왔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복종시키냐 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였다. 1511년 이들이 말라카를 정복하였을 때, 이 문제는 동남아에서 무슬림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분쇄시키면서 향료무역을 위한 새로운 해상 수송로를 개척하는 문제와 직결되었다.³⁰⁾ 포르투갈 정복자들은 약 100년 가량 이곳의 무슬림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맞서 대항한 지리한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다. 무슬림들의 끈질긴 투쟁은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그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닦아온 세계적인 무역망도의 재건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필리핀에서 스페인 정복자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 1570년 스페인이 마닐라 지역의 이슬람 사회를 침탈한 이후 민다나오(Mindanao)와 술루(Sulu)

29) Hall, *op. cit.*, p. 460.

30) 양 승윤, 앞의 책, pp. 30-33.

동지의 이슬람 영지에서는 남쪽으로 세력확장을 기도하는 스페인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다. 대략 300년 가량 지속된 이슬람의 對스페인 무력항쟁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다나오 중남부에서 일단락되었다.

약 1세기 늦게 동남아에 내도한 화란은 이곳의 식민통치에 보다 더 용의주도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기존 식민통치자들의 실패경험을 분석하여 이에 대비하는 일로 식민지 경략을 시작하였다. 화란은 자바와 향료군도 동지에서 지방 통치자들과 조약을 맺거나 동맹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무슬림들과 이들 전통세력간의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정치, 경제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³¹⁾

서양열강들의 파상적인 식민통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는 19세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부분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있거나, 서구의 식민통치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고 있었다. 19세기 이후에 비로소 서구열강의 식민통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고, 이때 부터 동남아의 정치, 경제질서는 전적으로 유럽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의 모든 전통 국가들은 이때부터 그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이래 식민통치 세력들은 동남아에서 각국의 편의와 이권에 따라 통치지역을 분할하고 인위적으로 국경을 결정하여 동남아의 전통적인 정치구조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다. 이 지역은 말레이 반도를 포함하는 영국 세력권, 수마트라를 포함하는 화란 세력권으로 분할되었으며, 말라카 해협을 따라 임의적인 국경선이 그어졌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사이의 전통적인 교섭관계는 영국과 화란의 식민통치 편의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민족, 언어, 문화, 종교, 그리고 심지어 종족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영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식민통치자들의 이권에 의해서만 새로운 경계가 정해진 말레이 반도 북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동남아는 이로써 포르투갈과 영국,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화란에 의해서 분할되었는데, 이것은 동남아인들의 전통과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적으로 식민세력들의 정치적 타협과 무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³²⁾

31) 양 승윤, 앞의 책, pp. 37-39.

32) 말레이반도 중북부의 태국 말레이시아 국경의 경우와 인도네시아령 팔리만탄과 사라왁, 사바를 잇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경, 그리고 이리안 자야(Irian Jaya)와 파푸아 뉴기니(PNG)의 경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말레이 반도와 사바·사라왁

해협 주로서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팅낭(Penang), 웰레슬리(Wellesley), 말라카,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말레이 주는 표면적으로 그들의 주권을 계속 해서 지켜나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레이 주들에게 영국 식민당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것은 고문 자격으로 활동한 고등판무관 제도를 통한 것이었다. 이들 말레이 주의 경제는 전적으로 영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었다. 특히 중국인과 인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식민당국에 의해서 조장되었으며,³³⁾ 싱가포르와 팅낭 항은 말레이 반도의 중심 무역항으로 개발되었다. 현대적인 관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된 해협 주에서는 영국식 법률제도가 집행되었다. 말레이 각 주는 그들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법률제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선별적이었다. 영국의 해협식민지에서도 영국의 법률적 인식과 일치하는 샤리아(Syariah)는 존중되었다.³⁴⁾

보통교육 제도는 식민정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히, 해협 식민지에서 발전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무간섭주의의 채택으로 중국과 인도계 이주인들을 위한 학교설립이 간접적으로 촉진되었다. 영국이 말레이어 교육을 시작했을 때, 영국 식민당국의 의도와 말레이계 원주민들의 희망이 합치되었기 때문에 이 식민교육 정책의 시도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새롭게 창출된 경제적, 교육적 기회와 실질적인 혜택은 주로 해협 식민지의 이주민 사회로 돌아갔다. 말레이 토착 귀족계급들은 단지 한정된 분야에서, 그것도 일부 계층에서만 식민당국의 정책적인 배려로 새로운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말레이 반도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말레이인들은 발전이 진행되는 분야로 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말레이인들이 이슬람 종교교육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들어, 전통 이슬람 교육제도는 식민당국의 비호 아래 계속해서 신장되었으며, 이슬람 사원과 마드라사(madrasah)와 뽀독(pondok) 등 마을단위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주 활동무대는 이슬람 종교교육의 중심지로 등장

3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략상품으로써 국제적인 수요가 급증한 주석(朱錫)의 채광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불붙기 시작한 구미의 자동차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말레이 반도의 고무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규모 고무농원 조성으로 인도인 노무자들이 대량으로 이주되었다.

34) Ariff, *op. cit.*, p. 12.

하였다. 올라마는 농촌지역에서 말레이인에 대한 사회 종교교육을 계속해서 담당하였다. 말레이 각 주에서 평범한 말레이인 중 소수만이 고등교육 혹은 현대교육을 받을 기회가 허용되었다. 말레이인들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생업의 터전인 농업과 어업 분야에 남아 있을 것을 고집하였다. 해협 식민지에서 일부의 개화된 무슬림들만이 무역, 상업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착 말레이인들과 이주자들 사이의 경제적인 불균형 발전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라왁(Sarawak)은 1840년대에 브루나이 술탄이 제임스 브룩(James Brooke)³⁵⁾에게 영토를 할양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권 뿐만 아니라 통치권까지도 양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백인왕이 탄생되었다.³⁶⁾ 비원주민이자 非무슬림인 백인왕의 등장은 사라왁의 통치방식에 새로운 통치자가 가지고 있던 서구식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 식민통치하의 말레이 반도의 여러 주의 경우와는 달리 이곳에서 이슬람은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가 없었다.

북부 보르네오(North Borneo)로 알려져 있던 사바(Sabah)는 브루나이와 술루(Sulu)의 술탄, 그리고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주식회사(British North Borneo Company) 사이의 약정에 따라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주식회사가 관장하는 일종의 간접통치 형태하에 있었다. 사라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바 역시 열강의 인위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까지 사바가 속해 있던 전통적인 정치체제로부터 분리되었다. 강력한 무슬림 엘리트의 부재와 식민당국의 직, 간접적인 이슬람 와해정책으로 사바에서 이슬람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한편, 영국의 식민정책에 따른 중국인들의 이주로 사바의 경제는 점차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따라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이슬람교의 改宗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35) 제임스 브룩은 영국 동인도회사에 소속된 군대에 근무한 바 있었는데, 1839년에 부친의 유산으로 선박을 구입하여 보르네오와 술라웨시 탐험여행 도중 사라왁의 꾸칭(Kuching)에 도착하였습. 이때 브루나이 영토였던 이 지역에는 안티모니 광산이 발견되어 왕실에서 파견된 영주들이 현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안티모니 채광에 혹사시킴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났습. 브룩은 브루나이 왕국과 친교를 맺고 꾸칭 지역의 반란진압에 공을 세웠고, 그 댓가로 1841년 사라왁의 총독 겸 라자(Raja)로 임명되었습. 이로 인해서 사라왁에는 영국인을 왕(Raja)으로 하는 브루나이 술탄왕국의 속령(屬領)이 생기게 되었다.

36) Hall, *op. cit.*, p. 572.

(3) 브루나이

다른 말레이 반도의 주(州)와 마찬가지로 브루나이는 영국에 술탄의 통치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1888년 영국 식민당국과 브루나이 술탄사이에 술탄의 지위를 영국 보호령하에 두는 협정을 체결하였다.³⁷⁾ 브루나이의 국내 통치는 여전히 술탄의 영향력하에 있었지만, 영국은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제반 사항에 대해 술탄에게 조언을 한다는 형식으로 고등판무관을 술탄 정부에 파견하였다. 또한 영국의 법률제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현대적 관료제도와 정부형태를 권장하였다.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술탄의 지위가 이로써 많이 견제되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던 보통 법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제도 또한 전통적인 정치구조로부터 현대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게 되었다. 브루나이의 국내 안보문제와 국제관계는 영국의 책임하에 있었다.

중국인들의 이주가 장려되었으며,³⁸⁾ 영국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개발도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의 전통적 계급제도는 여전히 존속하였다. 이슬람 종교는 부단하게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추적 역할로 자리하고 있었다. 종교교육은 브루나이 말레이인들의 이슬람적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말레이어는 브루나이 무슬림들의 의사소통과 종교교육의 중요한 매개체였다.

(4) 필리핀

필리핀에서의 이슬람 역사는 모로(Moro)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민다나오 남부 지역의 무슬림들과 스페인 식민 통치자와의 계속되는 대결의 연속이었다. 무슬림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해 온 민다나오 남부 지역은 20세기의 개방화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국의 식민통치하에 필리핀의 다른 지역들과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1899년부터 1903년까지 계속된 군사작전으로 1903-1920년 까지 대부분의 무슬림 지역은 미국 식민정부하의 군사적, 정치적 단위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식민통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은 쌍방 모두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다.

37) Ranjit Singh, *Brunei, 1839-1983: The Problems of Political Survival*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7-11.

38) 이 나라 인구 약 25만 명(1991) 중 중국인들이 4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정부는 아메리카 인디언 토벌에 경험을 쌓은 장군들을 모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어 이들의 순화(醇化)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초대 총독 우드(Leonard Wood: 재임기간 1903-1906) 장군과 2대 총독 블리스(Tasker H. Bliss: 재임기간 1906-1909)를 거쳐 3대 총독 퍼싱(John J. Pershing: 재임기간 1909-1913) 장군에 이르는 동안 이들 백전노장들은 모로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 백 차례의 전투와 끝없는 학살이 전개된 이후에 미국은 무슬림들에 대한 무력진압 정책을 포기하고 이들을 무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식민정부 내에 민다나오 술루 部를 두었다.³⁹⁾

1946년 미국이 필리핀인들에게 정부를 이양하자 무슬림 문제는 이제 필리핀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과 현대식 보통교육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무슬림 사회는 계속해서 이슬람의 전통적 근본원리를 고수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여전히 잠재적인 각종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었다. 필리핀의 무슬림들과 사바, 사라와 혹은 그보다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과의 접촉은 계속되었다. 또한 군도 간의 여러가지 형태의 무역도 필리핀 무슬림들과 다른 군도 지역의 무슬림들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은 가장 오랫동안 서구의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필리핀 남부의 무슬림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식민통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지역을 필리핀의 나머지 지역, 즉 북부의 루손(Luzon)이나 중부의 비사야스(Visayas) 군도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시도해 보려고 시도했던 미국의 식민정부 역시 이 노력에 실패하고 말았다. 스페인 식민통치 시대의 기독교화 정책과 독립후 마닐라 정부의 강력한 필리핀화 정책은 모두 필리핀 무슬림들에게는 그들의 장래문제에 커다란 불안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⁴⁰⁾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국토 면적과 문화적 다양성은 화란의 실질적인 식민통치

39) 이때부터 인디언 토벌에 공을 세운 장군들이 아닌 민간인 총독이 등장하였다. 카펜터(Frank W. Carpenter: 재임기간 1914-1920) 총독은 민간인 출신으로 모로인들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40) Ariff, *op. cit.*, p. 14.

영역을 자바(Jawa)섬에 한정시켰다.⁴¹⁾ 이곳에서 조차 화란은 원주민들의 빈번한 저항과 폭동을 경험해야 했다. 화란은 그들의 권위를 세우고 통치영역 확대를 위해서 지방의 실력자들과 은밀히 결탁하였다. 수마트라에서는 특히 정통 이슬람 세력이 연계된 폭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이러한 소요는 수마트라 북단 아체(Aceh)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슬람적 요인이 유일한 폭동과 소요의 요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슬람은 분명하게 反화란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서 화란의 식민정책에 여러가지 형태로 반응하였다. 좀 더 일찍 이슬람화된 지역, 즉 수마트라 북단의 아체와 총부의 미낭까바우(Minangkabau)와 같은 지역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중심지역으로 종교적 전통 이외에도 이슬람勢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 식을 줄 몰랐다. 자바의 농촌 지역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폐산뜨렌이나 아체의 마드라사(madrasah)는 이슬람 종교와 사상과 그리고 무슬림들의 동질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등장하였다. 성지순례 여행인 하지(Haji)는 열성적으로 지켜졌다. 심지어 아체인, 자바인, 그리고 일부 인도네시아 원주민 무슬림들의 영구 거주지가 聖地 메카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인도네시아 출신 젊은이들이 중동 현지에서 이슬람 종교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군도의 무슬림들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 사이에 상호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세기 초기부터 아랍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인도네시아 군도의 이슬람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무슬림들과 비무슬림 간의 이질성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한편, 이슬람 종교교육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말레이語는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전역에 걸쳐서 무슬림들의 동질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랍어 단어와 아랍어식 표현이 말레이어와 혼용되게 되었다.

(6) 버마

영국의 영령인도(英領印度: British India)의 변방으로 편입된 버마는 영국에 의한 역내의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도로 부터 무슬림들의 이주가 장려되었다. 인도에서의 힌두교도들의 경우처럼 인도인 무슬림들은 영국 식민정부의 공무원이나 각종 숙련 노동자, 식민정부 관리의 하인, 정부기관의 경비원, 제화공, 군인, 또는

41) 이에 관련된 사항은 양 승윤, 앞의 책, pp. 49-51을 참고 할 것.

상인으로 영령 버마에 이주해 왔다.⁴²⁾ 실제로 버마에 새로이 설립된 식민정부 기관에 인도인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 일부 기관은 전부 인도인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랑군(Rangoon) 인구의 절반이 인도인이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무슬림들이었다.⁴³⁾

버마로의 방대한 이주민 유입은 버마인들과 무슬림들의 관계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쳤다. 버마 사회로의 同化가 무슬림들의 증가로 인해서 억제되었다. 이와 함께 버마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존 사회지도계층의 상당 부분이 무슬림들로 교체되자, 이들 무슬림들 사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버마인 대비 숫적 열세에서 벗어나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자존심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다. 무슬림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지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조직개발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이슬람 종교 관련 협회와 무슬림들의 단체가 많이 생겨났다. 새로운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으며, 이슬람 종교교육이 열정적으로 장려되었다. 버마로 이주한 무슬림들로서는 버마가 단지 영령인도의 연장으로 보였다. 비록 타밀(Tamil)어와 벵갈(Bengali)어가 일부 계층에서 사용되었지만, 우르두(Urdu)어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종교교육의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었다.

영국 식민통치 기간동안 버마 무슬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반면에 인도로부터 유입된 무슬림 이주자들은 사회적 특전과 점증하는 무슬림 사회의 특성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주민 무슬림 사회가 시도하고 있던 이슬람 부흥운동의 혜택도 덩으로 누렸다. 그러나 그들은 이주민 무슬림 사회에 대한 혐오감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마찰을 우려하였다. 독창적인 불교문화의 배경과 長久한 역사를 가진 버마 사회에서 이주민 무슬림 사회가 확대되어 나가는 데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7) 태국

태국 무슬림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태국이 정치적으로 식민화되지는 않았지만, 서구열강의 식민정책은 태국 내 정치상황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이제까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던 국경지역의 영토확정에 착수해야만 했다. 태국 변방에 있던 군소 봉건제후들로 태국 왕실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은

42) Yegar, *op. cit.*, p. 30.

43) Ariff, *op. cit.*, p. 15.

이를 거부하고 나섰고, 이에 태국왕은 이들 소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교체시켰다. 빨따니의 전통 말레이계 무슬림의 술탄직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소멸되었다.⁴⁴⁾

태국 왕실의 재편성은 1855년에 체결된 보링조약(Bowring Treaty)⁴⁵⁾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태국은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따라서 태국은 당시 국제적인 열강들의 식민경제 網에 연계될 수 밖에 없었다.

동남아의 다른 피식민 통치국가와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 많은 노무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에는 영령(英領) 말라야와 화란령 동인도(인도네시아)에서도 노무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로부터 몰려든 무슬림 노무자들은 태국의 수도인 방콕의 이슬람화를 시도 하였으며, 최소한 불교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태국문화의 다양화에 약소한 영향을 미쳤다. 태국에서 무슬림들은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지위에 분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태국 전통문화의 벽을 허물고 지배적인 지위를 향유 하지는 못하였다.

빨따니 왕국이었던 말레이의 경우, 그들의 정치세력 약화와 전통적인 무슬림 엘리트들의 역할 상실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경제가 중국계 이주민들의 수중에 들어간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타이 무슬림으로 불리우는 이들은 행정상으로 태국의 직접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 현대적인 제도가 도입되고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많은 태국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슬람 문화의 잔재와 무슬림들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태국 정부는 이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각종 유희적 사업을 전개하였고, 많은 특권을 부여하였다. 필연적으로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은신처로써 이슬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태국 정부는 이들을 뒤쫓아 이슬람 종교교육과 말레이어 교육까지도 지원해 주었다.⁴⁶⁾ 이 지역의 혼합어이며 이슬람 종교교육의 중요한 매체인 말레이어는 당시 태국 정부의 위협을 받고 있던 말레이계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44) Ariff, *op. cit.*, pp. 15-16.

45) 버마 주재 영국대사 보링(Bowring)과 태국 왕실이 맺은 조약으로 양국 사이의 무역관계에 전통적인 태국 관행이 아닌 현대적인 영국상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고소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영국법규를 따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6) 태국 정부는 뼈너제도라 하여 타이 무슬림들에게 각종 이슬람에 대한 교육과 태국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뼈너는 이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이르는데, 이곳에서 아랍어를 비롯하여 말레이어를 4년간 가르치고 있다.

3. 독립 이후 동남아 이슬람사회의 변화

서구열강의 식민통치자들은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동남아 원주민들의 역할을 소 식민통치 기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약화시켰다. 19세기 후반에 식민통치자들이 도입한 현대적 행정제도와 제반 법규는 전반적으로 원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정치로부터 종교와 문화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행정제도의 세속화는 이제까지의 政敎一致와 神法統治라는 전통적 정치질서의 추상같은 권위를 실추시켰다. 식민통치자들은 이들 피식민통치 국가들의 경제를 좀 더 커다란 서구식 식민 경제의 틀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원주민들의 역할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만들었다.

원주민들은 식민당국이 부과한 각종 사건과 속세적인 변화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려 하였으며, 대부분이 종교 속에 은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무슬림에게 그들의 자존심과 종교적 신념 회복을 촉진시켜 주었으며, 비록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빼앗겼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자유롭다는 믿음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그들이 받은 종교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靜的이고 관습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원주민들의 정치활동 축소를 목적으로 한 식민통치자들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인 토대는 강하였지만, 神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에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이런 점은 정통 이슬람주의자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정치적 독립의 이데올로기에 고무되었던 동남아 지역 민족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식민교육 제도하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국가마다 독립쟁취의 과정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동남아에서 이슬람은 무슬림 민족주의자들의 독립투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은 식민통치기간(1942-1945) 말기에 식민통치의 최후 수단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나, 일본군 무장해체의 미명하에 인도네시아에 재상륙한 화란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의도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1949년에 이르러서 국제환경의 변화로 화란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⁷⁾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적 토양(土壤)과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화란식의 의회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이 되어 있지 않던 신생공화국 정부는 혼란, 분열 그리고 몇 차례의 폭동에 가까운 소요를 경험하였다. 수카르노(Soekarno)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를 수정하여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라는 정치체제에 접목시켰다. 수카르노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자, 종교 그룹, 공산주의자들의 상호경쟁을 통한 세력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나사콤(Nasakom)체제를⁴⁸⁾ 창안하였다. 그러나 1965년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 미수사건으로 나사콤 체제가 붕괴되면서 교도민주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한 동안 親/反 수카르노와 親/反 수하르토(Soeharto)세력간의 암투와 대립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그 후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수하르토의 신질서(Orde Baru: New Order) 체제하에서 이슬람의 脫정치화에 역점을 두고있다.⁴⁹⁾

인도네시아 군도와는 달리 혁명기를 거치지 않은 말레이 반도는 1957년 9개의 말레이 州와⁵⁰⁾ 페낭, 말라카를 포함하는 말라야연방이⁵¹⁾ 탄생하였다. 영국 의회정치 모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으로 특이한 입헌군주제도를⁵²⁾ 채택하였다. 1963년에는 사바와 사라왁 그리고 싱가포르와 함께 말레이시아연방(Malaysia)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정치적 상이성으로 인해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연방으로 부터 탈퇴하여, 영국식 의회민주제도를 본 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완전 독립하였다.

슬탄의 지위 문제와 석유이권 문제로 처음부터 말레이시아연방 가입 제의를 거

47) Hall, *op. cit.*, p. 895.

48) 민족주의자(Nasionalis), 종교세력(Agama), 그리고 공산주의자(Komunis) 등 3 세력으로 구성된 세력균형체제임.

49)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승윤,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政治參與에 관한 政治史的 研究,”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을 참고할 것.

50) 이에 해당되는 주는 페르리스(Perlis), 꼬다(Kedah), 페락(Perak), 트렝가누(Trengganu), 켈란탄(Kelantan), 팹항(Pahang), 너그리 쉴빌란(Negeri Sembilan), 조호(Johor), 셀랑오(Selangor) 등이다.

51) 말라야연방(Federation of Malaya)은 1948년에 결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연방형태가 갖추어지고 입헌군주제하의 연방정부가 구성된 것은 1957년이다.

52) 상기 9개 주의 세습 슬탄들의 불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양 디 삐르 두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이라고 칭하는 국왕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부국왕 제도가 있는 특이한 형태의 군주제도로써 국왕은 이슬람 종교문제를 전적으로 관장한다.

절하였던 브루네이는 1984년 1월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였다. 전통적인 술탄 친정체제에서 술탄 가문이 왕국을 통치하는 체제에 현대적인 정치체제가 다소 가미된 형태의 왕국으로 부활되었으며, 국명을 너가라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으로 개칭되었다.

1935년의 헌법을 토대로 1946년 7월에 독립한 필리핀은 독립 후 미국식 모델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한편, 버마는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 우 누(U Nu) 수상이 불교 우대정책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62년 3월 네 윈(Ne Win)의 돌연한 군사 쿠데타로 종결되었다. 이후 버마는 단하나의 정당, 즉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만이 허용되었으며, BSPP를 장악한 군부의 군사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1974년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여 형식적으로 군정을 종식시켰으며, 국명도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으로 바꾸었다.

버마 政情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게 되었다. 네 윈의 대통령직 사임 발표(1981년 10월)를 시작으로 해서 BSPP 당의장직 사임(1988년 7월)에 이르기까지 버마는 전국적으로 민주화의 진통을 겪게 되었다. 1989년에 사우 마웅(Saw Maung)을 앞세워 등장한 신 군부는 국호를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으로 재개칭하고 對국민 유화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내상황과 국제관계가 모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실정이다.

태국은 직접적인 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1932년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교체되면서 이 나라 정치문화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입헌군주체제하의 태국 정치는 관료사회의 팽창과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야기된 끊임없는 정치 불안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캄보디아는 현대 동남아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정치변화를 경험했다.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1970년까지 중립주의를 표방해 온 캄보디아 왕국으로 존속해 오던 캄보디아는 론 놀(Lon Nol)의 쿠데타로 親美 크메르공화국으로 바뀌었다. 1975년 크메르공화국의 붕괴 이후, 크메르 루지(Khmer Rouge)는 1976년에 캄보디아를 다시 민주캄푸치아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1979년 親북경 크메르 루지의 패배로 親蘇·親베트남의 캄푸치아인민공화국

이 세워졌지만 정통성이 의문시되고 있다.⁵³⁾

헝 삼린(Heng Samrin)과 훈 센(Hun Sen)이 이끄는 캄푸치아인민공화국은 베트남군이 철수한 후 기존의 세력기반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1989년 7월 옛 캄보디아 왕국의 외교정책에 따라 중립국 선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명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색채가 배제된 캄보디아국(the State of Cambodia)으로 개칭하고, 이제까지의 적대세력과 신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버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도 80년대에 들어서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건설 문제와 이해를 달리는 諸세력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IV. 東南亞 各國의 이슬람現況

1. 인도네시아

오늘날 인구의 약 90퍼센트인 1억 6천 5백만명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들의 구성은 종족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도 많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300종 이상의 종족그룹과 250여 종이 넘는 언어가 常存하고 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동서로 4,800km, 남북으로 1,600km 걸쳐 넓고 길게 펼쳐져 있는 인도네시아는 17,508개에 달하는 군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양성 자체가 이 나라의 상징일 수 있다.⁵⁴⁾ 자바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 1,904,569km²의 7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총 인구 1억 8천 5백만명(1991년 추계)의 60퍼센트 이상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인구밀도가 매우 조밀한 곳이다.

인도네시아가 비록 절대인구 분포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국가 이데올로기로써 판짜실라(Pancasila) 원리를 신봉하는 세속국가임을 자처하고 있

53) 유엔과 아세안 회원국, 그리고 많은 서방국가들은 헝 삼린의 캄푸치아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을 승인하지 않고, 민주캄푸치아연립정부(the 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를 인정해 왔다. 상기 연립정부는 키우 삼판(Khieu Samphan)의 크메르 루지(Khmer Rouge)와 손 산(Sonn San)의 크메르인 민해방전선(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과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추종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54)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국가이데올로기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Bhineka Ika Tunggal: Unity through Diversity)이다.

다.⁵⁵⁾ 판짜실라 이데올로기를 근거로하여 이슬람교 이외에도 힌두교, 불교, 카톨릭교, 기독교 등 어떠한 종교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고있다.

무슬림들도 그들의 종족적 배경과 언어, 지역적인 다양성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자바 무슬림들은 특히 명목상의 무슬림인 아방안(abangan)과 정통 이슬람주의자인 산뜨리(santri)로 분류된다.⁵⁶⁾ 이러한 두 가지 광의의 구분 이외에도 보다 많은 구별이 있다. 예를들어, 산뜨리들은 개혁주의자, 전통주의자, 신비주의자 등으로 보다 더 세분할 수 있다. 또한 무슬림 사회는 교육방식에 따라 보통교육을 받은 사람과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좀 더 세속적인 서구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은 외부지향적이며, 그리고 서구적 생활 스타일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도시지향적이며 동시에 세계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에 비해서 動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또한 엘리트 그룹과 일반대중 그룹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부들이다. 대개의 경우 도시 무슬림들은 소규모의 무역업자이거나 혹은 단순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의 법률제도는 세속적이다. 이슬람 법인 샤리아(Syariah)는 ‘관습(adat)’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다.⁵⁷⁾ 종교법정이 있으나 재판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무슬림 가족법이 공식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집행절차의 일부분은 세속적인 경향을 띄고있다. 수카르노 통치시대인 1962년에 종교위원회가 정부 내에 설치되었으며, 수하르토 집권 이후인 1975년에는 정부와 국민의 이슬람 종교문제에 대한 ‘법률(fatwa)’ 집행을 위해서 재조직되었다.⁵⁸⁾

55) 판짜실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승균,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政治參與에 관한 집행史的 研究” pp. 159-169. 를 참고할 것.

56) 아방안(abangan)은 자바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린 정령(精靈)숭배의 애니미즘(animism)을 바탕으로 그 후에 전래된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순수한 형태와는 다소 상이한, 이슬람을 신봉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주로 자바의 촌락지역에 사는 농부들인데 이들도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표현한다. 산뜨리(santri)계층은 아방안에 비해서 이슬람 색채가 강하고 정통이슬람주의를 따르는 무슬림들인데, 이들은 주로 해안 도시지방에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무역업을 하고있다. Clifford Geertz,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 5-6.

57) Deliar Noer, *Administration of Islam in Indonesia*, Monograph Series No. 58(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pp. 42-45.

58) Ibid., pp. 74-75.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는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었다. 의회민주주의 경험시기(1950-1957)는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 단지 민족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첨예화시켰을 뿐이었다. 국민대중의 정치참여는 신생국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 간의 분열을 한층 가속시켰다. 이슬람은 나흐다툴 울라마(Nahdatul Ulama)나 마슈미(Masyumi)와 같은 무슬림 정당들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지만, 반면에 이슬람의 정치화는 무슬림계 정당과 다른 정치조직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의 원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회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붕괴원인은 이질적인 諸 정당들간의 공작정치 심화와 이슬람주의에 의해 발화된 지역 폭동의 발발이라 할 수 있다.⁵⁹⁾

그후 수카르노는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슬람 세력들간의 상호 상충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정치적 타협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도민주주의를 구상하였으며,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한 나사콤(Nasakom) 체제를 구축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의 국민통합을 유지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1965년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수카르노의 권력과 교도민주주의 시험은 막을 내렸다. 9·30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의 통일을 분열시키는 요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권위주의적 정부가 등장하였고 군부통제하에 정치체제가 재편되었다.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공산당원들 역시 소탕되었다.

‘신 질서(Orde Baru)’ 하에서 수하르토(Soeharto) 정부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짬짜실라 민주주의 만이 유일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재정비되었다. 군부의 지원을 받는 골카르(Golkar)당의⁶⁰⁾ 지위는 강화되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정당들은 개발연합당(PPP: Partai Perhimpunan Pembangunan)의 깃발 아래 통합되었으며, 반드시 짬짜실라 원리를 채택하도록 강요받았다.⁶¹⁾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어느 정도 이슬람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성공

59) 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다룬 자료로는 Herbert Feith, *The Declin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Indonesia*(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가 있음.

60) 직능그룹(Golongan Karya: functional group)이라는 뜻을 가진 비정치단체로 1964년에 결성되었으나, 수하르토의 군부세력에 의해서 1971년 정당으로 탈바꿈한 후 제3차 총선거에 참가하여 군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61) 인도네시아는 Golkar와 PPP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민주당(PDI: Partai Demokrasi Indonesia)이라는 온건 민족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으로 구성된 정당이 있다.

하였지만,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잠재능력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치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⁶²⁾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말레이시아는 총 인구 1,850만(1991년 추계)의 약 55퍼센트 정도가 무슬림이다. 모든 무슬림들이 말레이인은 아니지만, 말레이인들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말레이계 원주민들을 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부미뿌트라(Bumi putera)'로, 중국과 인도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과 그 후예들로 구성하는 비원주민들을 '논 부미뿌트라(non-Bumi putera)'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특히 사바와 사라왁 지역의 무슬림들이 모두 부미뿌트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나, 모든 원주민들이 반드시 무슬림이 아니듯이 이슬람 종교적인 구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논 부미뿌트라, 즉 비원주민계 국민으로 분류되는 중국인과 인도인들은 대개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원주민계 국민을 지칭하는 말레이인들과 토착 원주민들보다 훨씬 앞서있다.⁶³⁾ 대부분의 부미뿌트라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이주민들에 비해서 크게 뒤져있다.

1969년의 심한 공작정치와 말레이인과 非말레이인간의 현격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야기된 인종폭동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었다. 의회가 기능을 정지한 비상시기(1969-1972)에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은 직접적인 정치적 충돌을 줄이고 합의정치를 도출해 낼수 있는 새로운 구조적, 제도적, 정치적 메카니즘의 창출을 위하여 정치체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민족에 관계없이 빈곤을 타파하고, 직업과 전문성에 의한 민족적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의 이름으로 상기 두 가지 정치적 목표를 체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되었다. NEP는 부미뿌트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나아가 말레이시아 사회에 보다 많은 직업과 경제 활성화의 기

62) 양승윤,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政治參與에 관한 政治史的 研究," pp. 144-158.

63) 이에 관련된 내용은 Gordon P. Means, *Malaysian Politics*(London: Hodder & Stoughton, 1976)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회를 제공하였다.⁶⁴⁾

그러나 이질적인 종족적 요소는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정치발전에 불씨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여전히 종족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의 이익은 많은 정당들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정당으로는 여당인 통일 말라야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과 야당인 이슬람당(PAS: Partai Islam)이 있다. 여러 종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연합체인 국민전선(NF: National Front)이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NF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서로 다른 이익을 대변하는 12개 대소 정당들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UMNO는 NF에서 가장 큰 핵심정당이다. 주요 非무슬림 야당으로는 다민족 다종교에 토대를 두고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이 있지만, 본래 이 당은 중국인들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이슬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지방정치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도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PAS는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켈란탄(Kelantan), 트렝가누(Trengganu), 꼬다(Kedah), 뻬를리스(Perlis)와 같이 말레이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있다. UMNO가 이끄는 NF는 점진적이고 선별적으로 정부정책에 이슬람 신앙적 요소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국왕이 말레이계 무슬림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원주민계 국민들의 우선권을 명시한 말레이시아 헌법을 불문롤로써 떠받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비하여 DAP는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다종교적 바탕 위에 세속주의의 수용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은 종교적으로 보다 의식화되어 있는 무슬림 사회의 상승된 기대감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NF의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의 종교적 규율을 일상생활 속에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 또한 무슬림들 사이에

64) R. S. Milne & Diane K. Mauzy, *Politics and Government in Malaysia*(Singapore: ISEAS, 1978), pp. 321-351.

서는 학문적인 관심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도 있다. 현재 대중매체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공개적인 토의와 논쟁이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⁵⁾ 보다 철저히 이슬람주의를 고수하는 교육, 보건, 산업, 상업 및 금융부문의 새로운 기관들이 NEP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 속에 세워지고 있다.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무슬림협회와 기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조직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무슬림청년운동(ABIM: Angkatan Belia Islam Malaysia)은⁶⁶⁾ 무슬림 뿐만 아니라 非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다룰 아르람(Darul Arqam)⁶⁷⁾이라고 명명한 조직은 무함마드 시대의 초기 무슬림 사회의 금욕적인 생활로 회귀할 목적으로 비정치적 대중운동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NEP 뿐만아니라 각종 원주민계 국민 우대정책과 이슬람 부흥운동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말레이인과 기타 토착 원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복합민족국가인 말레이시아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비원주민계 국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들의 '2등 국민적 대우'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사회불안이 크게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인구 약 270만(1990년)의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의 도시국가이다. 이 중 중국인들이 인구의 약 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인은 약 15퍼센트에 불과한 소수 민족이며, 인도인이 약 6퍼센트 그리고 그 이외의 소수 민족들이 2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무슬림 숫자는 총 인구의 약 16퍼센트에 해당하는 43만명을 조금 넘고 있다. 동남아 다른 지역의 무슬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무슬림 역시 다양한 인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대부

65) 동남아 특히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운동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는 바, 중요한 논문의 하나는 Omar Farouk, "Malaysia's Islamic Awakening: Impact on Singapore and Thai Muslims," *Conflict*, Vol. 8. pp. 157-168이 있음.

66) 가장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무슬림 조직으로 국내외에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 많은 무슬림 지식인들을 포용하고 있는데, 마하티르 수상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실질적인 리더임.

67) 이 이슬람 대중조직은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관여하고 있는데, 학교와 식당과 체인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하고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 복장착용 운동도 전개하였다.

분은 말레이인들이다. 이들 말레이인 무슬림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중국인 무슬림의 수는 매우 적으며, 그밖의 싱가포르 무슬림 들로는 소수의 파키스탄인, 인도인, 아랍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인 무슬림들은 비말레이계 무슬림들이나 여타의 종족적 배경을 가진 다른 싱가포르 국민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져있다. 능력주의 교육제도하에서 말레이인 무슬림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다. 1980년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말레이인은 단지 679명에 불과하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2개 언어 병용교육 정책과 의무적인 영어 습득을 각급 학교에 강조함으로써 이 나라의 말레이계 국민들은 고등교육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말레이인과 다른 종족간의 결혼은 흔히 있는 일이며, 특히 인도계와 파키스탄계 무슬림들의 경우는 더욱 빈번하다. 싱가포르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말레이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빈곤층도 또한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주택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말레이인들만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群居형태에서 여러 종족이 혼합하여 거주하는 현대적 고층아파트 주택단지로 말레이인들을 재이주시켰다.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에 의한 말레이인들의 재이주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들 말레이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의 문제와 전통적인 근거지 선호 등의 문제로 적지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독특한 국가적 동질성을 창출노력을 말레이인들도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일부 말레이인들은 이러한 싱가포르화 정책수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주자가 말레이인인 지역에서 조차 의회에 내보낼 말레이계 후보자가 없다. 말레이계 인사들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나라의 말레이인 사회규모에 비례해서 반영된 숫자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⁶⁸⁾ 싱가포르 말라유민족 협회(PKMS: Persatuan Kebangsaan Melayu Singapura)와 같은 말레이계 야당들이 계속해서 존속해 왔지만, 아직까지 의회에 대표를 진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비정치적 무슬림 동호인 모임이나 각종 협회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무슬림들을 위한 종교문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들의 신앙의 자유 보장과 이슬람 종교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무슬림들에게 확

68) Ariff, *op. cit.*, pp. 21-22.

신시켜 주기 위해서 1966년에 정부의 무슬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이슬람 의회(MUIS: Majlis Ugama Islam Singapura)를 설치하였다. MUIS는 각종 회사(zakat)와 헌금에 관한 사항과 성지순례 여행의 지원, 그리고 무슬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정부의 對무슬림 관련 업무 중 이슬람法 사리아의 적용과 이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MUIS는 이슬람 관계 법령(fatwa)을 심의하고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전국에 산재해 있는 100개에 가까운 이슬람 사원의 관리도 MUIS가 맡고있다. 1975년 이후로 MUIS는 이슬람 성전인 머스짓의 설립기금으로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단체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와 무슬림 단체들은 말레이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기구를 설립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보다 많은 싱가포르 무슬림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과 나아가서 싱가포르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무슬림 우대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역내협력을 중요시하는 이 나라가 이웃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통한 사회안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4. 필리핀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이다. 필리핀의 인구는 6,200만 명(1991년 추계)에 달하며, 그들은 많은 종족과 종족사회를 반영하듯이 87개의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이슬람은 스페인 식민통치 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다나오(Mindanao) 남부 지역의 무슬림들은 300여년간에 걸친 對스페인 항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남부 무슬림 지역들이 행정적으로 필리핀 정부에 통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무슬림들의 강력한 저항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필리핀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모로(Moro)라고 부른다. 실제로 필리핀의 무슬림들은 마라나오(Maranao)족을 비롯하여 마긴다나오(Maguindanao), 따우스(Tausug), 사말(Samal), 야칸(Yakan), 이라난(Iranun), 하마마뽀(Jamama-pun), 받하오(Badjao), 깔리부간(Kalibugan), 깔라간(Kalagan), 상힐(Sangil) 등과

같은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로(Moro)라는 호칭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필리핀 국민의 종교분포를 83퍼센트의 로마 카톨릭, 9퍼센트의 프로테스탄트로 볼 때 모로인의 수는 전 인구의 약 7퍼센트를 상회하는⁶⁹⁾ 약 450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들은 여전히 술루(Sulu)와 그 주변의 도서지방, 따위따위(Tawi-tawi)섬, 그리고 南 라나오(Lanao del Sur), 마긴다나오(Maguindanao), 바실란(Basilan) 지역에서 여타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보다 숫적으로 월등하게 우세한 위치에 있다.⁷⁰⁾

모로인들은 대부분이 농부이거나 어부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교사와 교수, 행정관료, 직업군인, 재판관 그리고 시장이나 주지사 등 정부고관이 된 무슬림들도 적지 않다. 현대식 보통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은 쉽게 필리핀인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통교육을 받지 않고 전통적인 종교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은 필리핀 사회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이슬람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무슬림 엘리트들은 필리핀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필리핀 무슬림 사회의 동질성은 광범위한 종족 분포와 이들의 단순하지 않은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강한 종교적 형제애로 강화되어 나왔다. 이들은 이슬람 종교문제와 자주권 확보문제에 강한 결속력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서 마닐라 정부와 빈번한 마찰을 빚어 왔다.

이슬람 종교문제만으로 필리핀 무슬림들이 결속된 것은 아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무슬림들이 단결해야만 했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경제적 궁핍과 투쟁의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수십년간에 걸쳐 진행된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기독교인 이주정책은 전통적인 인구분포로부터 무슬림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민다나오 지역으로 막대한 국내외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됨으로써 무슬림들의 전통적인 생활터전이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의 과실은 무슬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전

69) Michael O. Mastura, *Muslim Filipino Experience: A Collection of Essays*(Manila: Ministry of Muslim Affairs, 1984), p. 178.

70) 특히 술루와 바실란 지역의 무슬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eter G. Gowing & Robert D. McAmis, (eds.), *The Muslim Filipinos* (Manila: Solidaridad Publishing House, 1974), pp. 61-255을 참고할 것.

통적인 선입관을 한층 강화시켰다.⁷¹⁾ 1960년대에 들어서서 불붙기 시작한 무슬림 독립운동(MIM: Muslim Independence Movement)은 모로인들이 중심이 된 필리핀 무슬림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소외감을 증폭시킨 결과로 파생된 것이다. 무슬림 독립운동에 이어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이 결성되고 모로해방군(BMA: Bangsa Moro Army)이 연이어 조직된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소외감으로 필리핀 남부 무슬림들의 좌절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나름대로 필리핀 무슬림들이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으로써 더욱 더 소외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전제로 무슬림 문제해결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오래전 부터 무슬림 문제는 필리핀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과 집행에 있어서 무슬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모델로 한 정체체제 모방은 그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국가의 정통성에 도전하여 反정부 폭동을 일으켰으며,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격차는 더욱 넓어지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과시하기 위해 私兵을 두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이종사회(Plural Society) 구조는 무슬림들의 불만의 소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1972년에 마르코스(Ferdinand Marcos)가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은 사회의 혼란으로부터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마르코스가 건설하려 했던 「신 사회」(New Society)는 필리핀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슬림들의 소요는 국가적 희생이 크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MNLF간의 적대관계를 종결하기 위한 트리폴리 협정(Tripoli Agreement)⁷²⁾을 체결하였다. 정부가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한 갖가지 유희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필리핀 무슬림 성지순례여행위원회」와 「무슬림 번영위원회」 등이 설립되었으며, 그

71) Ariff, *op. cit.*, p. 23.

72) 1976년 12월 마르코스는 OIC(이슬람국가기구)의 압력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부 민다나오의 9개 주와 팔라완, 바실란, 술루 따위따위 등 13개 지역을 관장하는 자치정부안(案)을 약속함. 그러나 마르코스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동 협정은 민다나오 전 지역에서 행하여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리고 무슬림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무슬림가족법」이 시행되었다.

아퀴노(Aquino)가 집권한 이후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남부의 모로인들에게 적극적인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한편 이들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마닐라 정부는 1990년 10월 따위 따위, 바실란, 솔루 南, 라나오, 마긴다나오 등 5개 모로인 우위지역에 무슬림 자치정부 설립을 허용하였다. 아퀴노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자치정부 육성책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감과 마닐라 정부에 불만을 가진 무슬림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와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슬림들을 포함한 필리핀의 민주주의 실험은 현재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필리핀 무슬림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마닐라 정부의 짐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브루나이 다루살람

1984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한 브루나이는 5,765km²의 국토면적을 가진 이슬람 술탄왕국(Islamic Sultanate)으로 이 나라의 정치상황은 대체로 평화스럽다. 브루나이의 인구는 약 25만명(1991년 추계)이며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의 거의 대부분은 말레이인들이며, 이들 중에는 소수의 중국인 개종자도 있다. 이슬람은 국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있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배제된 채 왕족이 국가와 정부를 통치해 온 브루나이는 영국의 강력한 후원 하에 이제까지 별다른 어려움없이 종교정책과 그 밖의 다른 공공정책을 시행해 나왔다. 석유수입에 의한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개발이 政教一致의 이 나라 정치체제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경제개발 시책을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왔다. 이를 위하여 브루나이 정부는 국왕의 절대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샤리아 준수강화를 골자로 한 종교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에게 이슬람 왕정체제하의 臣民意識 주입에 힘쓰고 있다.

브루나이는 이렇듯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도 신중하게 대처해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봉건사회를 존속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만 5천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시민권과 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술탄 정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이들 화교세력간에 마찰과 알력을 심화시키고 있

어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6. 버 마

1990년 통계로 버마의 총 인구는 4,200만명이며 이 중에 무슬림은 1983년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약 3.9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⁷³⁾ 무슬림들은 버마 전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만달레(Mandalay)나 양공(Rangoon)과 같은 대도시에는 무슬림들의 집중현상이 좀더 두드러진다. 특히, 부띠다웅(Buthidaung), 여띠다웅(Yathedaung)과같이 아라칸(Arakan) 지역에 있는 도시는 무슬림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여러지역들 역시 버마의 다른 지역과 달리 무슬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아라칸 지역의 무슬림들은 상당 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버마에는 깔라 빠띠(Kala Pathee)라고 칭하는 인도인 무슬림, 제여버디(Zerboadee)로 통하는 버마인 무슬림, 그리고 빠슈(Pashu)와 판떼(Panthay)로 불리우는 말레이인 무슬림, 몇 중국인 무슬림 등 4개 주요 무슬림 그룹이 있다. 숫자상으로는 깔라 빠띠와 제여버디만이 중요 그룹이다. 이슬람 정통주의자로 분리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버마인 무슬림들은 버마인 불교 신도들과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버마 무슬림들은 버마語로 표기할 수 있는 무슬림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버마식 이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도계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무슬림식 이름을 사용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버마 무슬림들은 국가에 대한 열의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어렵지 않게 국가정책에 참여하여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버마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 무슬림들은 버마에서 아직도 자신들이 가진 이슬람문화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룹으로 보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버마 무슬림들은 인도 무슬림들과는 생활환경 면에서 다소 구분이 된다. 즉, 두 부류의 무슬림들이 넓게는 무역업과 상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마 무슬림들은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버마에 있는 인도 무슬림들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상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1962년 이후 경직된 사회주의 정책이 다른 무슬림들 보다도 인도 무슬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인도 무슬림들의 경제적 활동분야인 자유기업이 크

73) Ariff, *op. cit.*, p. 25.

게 제한되고 국제무역이 단절되었으며, 수입이 규제되고 엄격한 통화관리가 행해짐으로써 이들은 버마의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버마인 무슬림들은 1948년 독립 이후 우 누(U Nu)의 불교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보호와 자유를 향유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⁴⁾ 그들은 우 누가 재임한 민주주의 시기 동안에 중요한 정치적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급 대표자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1962년의 군부 쿠데타와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일한 합법정당인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주도하의 군부 통치체제의 동장으로 무슬림들의 정치적 지위는 무참히 박탈당했으며, 정치참여의 기회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무슬림들간의 불화는 군사정부가 무슬림들의 분열을 효과적으로 조장할 수 있게 했다. 버마이슬람센터(ICB: Islamic Centre of Burma) 같은 기구들은 버마의 군사정부와 BSPP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 자미아툴 울라마(Jamiatul Ulama)와 같은 정통 이슬람 조직은 버마의 신 정권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국경지방인 아라칸에서는 로힝자민족해방전선(RNLF: Rohingya National Liberation Front)이 버마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반정부 폭동을 전개하였다. 카렌 민족해방군(KNLA: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과 공동전선을 펴고있는 꼬뜰래 무슬림 민족해방전선(KMNLF: Kawthoolay Muslim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게릴라전과 반정부 선전활동으로 버마 군사정부의 반대편에서 있다. 이와는 달리 무슬림사회만의 이익 추구가 아니고, 당과 버마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BSPP와 군사정부에서 활동하는 무슬림도 있다.

7. 태 국

전 인구의 95퍼센트가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태국에서 이슬람은 불교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이다. 태국의 인구를 5,600만명(1991년 추계)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4퍼센트에 달하는 230만명이 무슬림이다. 태국의 무슬림 비율을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전하는 다른 조사 보고서도 있다.⁷⁵⁾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왕

74)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Frank N. Trager, *Burma: From Kingdom to Republic*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pp. 119-139를 참고할 것.

75) Omar Farouk, "The Muslims of Thailand," in Lutfi Ibrahim, (ed.), *Islamika*(Kuala Lumpur: Sarjana Enterprise, 1981), p. 98.

국 내에서 무슬림들이 중요한 소수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국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싸툼(Satun), 나라티왓(Narathiwat), 팟따니(Pattani), 알라(Yala) 등 4개 주에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태국 무슬림들은 찡왓(Changwad)이라 불리우는 태국 내 73개에 달하는 州의 30여 주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태국에는 전국적으로 2천개소가 넘는 이슬람 사원이 있으며, 방콕 시내에 있는 이슬람사원 수만 해도 싱가포르 전체 숫자의 거의 두배가 된다.

태국의 무슬림들은 한 종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족 그룹이다. 공식적으로 그들을 '타이 무슬림(Thai-Issalaam 혹은 Thai-Mussulim)' 이라고 부른다. 일부 사람들은 무슬림을 '쾌(khae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슬림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호칭이다.⁷⁶⁾

타이 무슬림 이외에도 말레이 무슬림, 인도네시아(특히 자바 출신) 무슬림, 인도(특히 편잡과 타밀 출신) 무슬림, 방글라데시 무슬림, 그리고 팟따니 무슬림 등이 태국 무슬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타이 무슬림을 제외하고 숫자상으로 말레이 무슬림들이 가장 큰 단일 종족집단을 이루고 있다.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말레이 문화와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레이 문화에 더 익숙해 있다. 일부 정통 이슬람주의자들이 羈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제외한 非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태국 사회에 동화되어 일반 태국인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태국의 무슬림들은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해 왔다. 그들 중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소작농들이다.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방콕과 태국의 주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정부관리나 상인, 그리고 각종 도시 노동자로 생업에 종사한다. 산업분야, 금융계, 의학계, 법률계 등과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무슬림들은 소수지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군부에도 많지 않은 수의 무슬림들이 있다. 경제면에서 일반적으로 타이 무슬림들은 일반 불교도들과 다소의 구별이 된다. 즉, 타이 무슬림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 이들은 특히 상업과 무역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분리주의 주장은 계속해서 태국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팟따니 통일해방기구(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팟따니

76) Ibid., pp. 116-117.

민족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tani), 민족혁명전선(BRN: Barisan Revolusi Nasional), 그리고 여타의 수많은 조직들이 이끄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분리주의 운동은 비록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분리주의 주장은 대체로 先완전분리 後독립정부 수립, 태국 내의 자치정부 구성, 말레이시아의 1개 연방으로 편입 등 3가지로 압축된다.⁷⁷⁾

태국정부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문화적 자치권에 대한 열망을 종종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태국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열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문화적으로 그들을 예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정부대로 특히 말레이계 무슬림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들 무슬림 사회에 어느 정도의 종교적 특권을 주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을 정치적으로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태국정부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무슬림들을 불교사회로 동화시키는데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 지속적인 태국정부의 對무슬림 유화정책으로 1979년 이래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정치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종교활동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다. 태국 정부의 對무슬림 지원정책은 주로 그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을 위한 갖가지 유화정책 속에는 무슬림들의 선교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슬림들은 각종 출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슬람 종교문학서를 포함하여 각종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에게는 언제나 분리주의적 열망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태국 왕실의 후원을 받는 쥘라랏차몬뜨리(Chularatchamontri) 그룹, 알 지하드(Al-Jihad) 紙를 발행하는 이슬람 현대주의자 그룹, “결속”이라는 뜻을 가진 알 라비타(Al-Rabbitah)의 발행을 주관하는 정통 이슬람주의자들, 그리고 이들 두 세력과 경쟁을 거리면서 쥘

77) 이에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Omar Farouk, “The Historical and Transnational Dimensions of Malay-Muslim Separatism in Southern Thailand,” in Lim Joo-Jock and Vani S., (eds.), *Armed Separatism in Southeast Asia*(Singapore: ISEAS, 1984), pp. 234-257과 Surin Pitsuwan, *Islam and Malay Nationalism*(Bangkok: ThaiKhadi Research Institute, Thammasat Univ., 1985), pp. 226-244. 등을 참고할 것.

라랏차몬뜨리의 간섭을 거부하는 태국 남부의 정통 말레이계 무슬림 그룹 등 4개의 그룹이 서로 무슬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분리주의 운동 속에서 일반 타이 무슬림들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結 語

동남아의 이슬람 역시 중동으로부터 전파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이 내도하기 이전에 동남아는 힌두 불교문화가 이미 滿開하고 있었다. 이슬람은 각종 文明利器와 함께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적 富를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노우하우를 가지고 동남아로 진출하였다. 오랜기간 동안 힌두교와 불교의 신비주의적인 교리에 식상했던 동남아의 고대 왕족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장하며 동시에 새로운 대개체를 가져온 이슬람은 쉽게 수용되었다. 동남아에서 이슬람은 기존의 힌두 불교문화의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고, 짧은 시간 내에 아체(Aceh)로부터 인도네시아 군도를 거쳐 필리핀 군도 북단의 루손(Luzon) 까지 번져나갔다. 당시 종교적 소양과 새로운 지식 및 학식을 갖춘 무슬림들이 국제무역과 역내의 상업활동을 장악하고 해상운송을 통제하였으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고 기존의 힌두 불교문화와 절충적인 형태로 동남아를 이슬람화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남아의 거의 모든 지역은 19세기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서구열강의 식민지 확장의 제물이 되었고, 무슬림들의 경제적 패권 또한 붕괴되었다. 무슬림들의 선박 건조술과 국제무역에 대한 노우하우도 결국 서구세력들에게 추월당했다. 무슬림들의 주도권이 상실됨에 따라 이 지역의 군소 왕국들도 차례로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힌두 불교문화 위에 정착되었던 이슬람문화는 서구세력과 함께 내도한 기독교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서구 식민주의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제도가 소개되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출되었다. 중국과 인도로부터 수 많은 이주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역사적 배경이 무시한 채 새로운 정치적 국경선이 동남아의 여기저기에 그어졌다. 서구 법률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동남아에도 현대적인 관료제도가 마련되었다.

무슬림들은 문화와 종교부문에서도 서구세력에 패하여 완전히 밀려났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슬람 종교교육은 강화되었다. 어떠한 형태든간에 급격한 변화는 거부되었으며, 또한 거부의 주체인 무슬림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카를 동경하고 중동 이슬람지도국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지도를 기대하였지만, 중동 역시 서구세력들로부터 격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슬람이 서구 지향적인 현대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적용 방안이 나왔으며, 기존의 전통적이고 완고한 이슬람의 접근방식을 비실용적인 것으로 보는 새로운 이슬람 부흥운동이 생겨났다.

서구의 정치문화와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생국가들의 등장은 무슬림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동남아 무슬림들은 서구열강의 식민통치 말기까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사회를 유지해 나왔다. 그들이 당면한 민족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국제정세 등은 변화의 폭과 속도가 너무 광범위하고 빨랐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남아의 다른 종교집단에 비해서 아마도 무슬림들은 새로운 민족국가의 등장으로 야기된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욕구에 재적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헌법, 법률제도, 시민권, 정당, 선거 등과 같은 새로운 정치제도는 무슬림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새로운 변화와 제도의 생소함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려는 집단적인 운동을 전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동남아 무슬림들의 분리독립 무장폭동은 민다나오에서, 사바에서, 팡파니에서, 그리고 아찌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독립국으로서의 진통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전통사회에 移植되는 과정에서의 진통도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이슬람 부흥운동에 따라 무슬림들은 국민들 간에 긴장과 불만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서구의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탈세속화를 통한 이슬람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슬림들이 신봉하는 이슬람교는 비무슬림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일부 국가의 무슬림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지난 날의 이슬람에 비해서 현재는 단지 하나

의 일반적인 종교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슬람 부흥운동은 동남아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동남아의 방대한 시장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종교적 사명감을 가진 무슬림들이 동원된다면, 무슬림 사회의 번영과 함께 동남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손주영. “셰이크 알리 압둘 라지끄의 논저 「이슬람과 통치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9호(1988).
- 양승윤.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政治參與에 관한 政治史的 研究.”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_____. 『인도네시아 政治論』. 서울 : 명지출판사, 1990.
- Ariff, M. *Islamic Banking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1988.
- Arnold, Thomas W. *The Calipha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67.
- Brunel, Ranjit Singh. *1839-1983: The Problems of Political Survival*.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Fang, Lain Yock. *Undang-Undang Malaka*. The Haque : Martious Nijhoff, 1976.
- Farouk, Omar. “The Historical and Transnational Dimensions of Malay-Muslim Separatism in Southern Thailand.” in Lim Joo-Jock and Vani S. eds. *Armed in Separat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1984.
- _____. “Malaysia’s Islamic Awakening: Impact on Singapore and Thai Muslims.” *Conflict*, Vol. 8. London: Crane, Russak & Co.
- _____. “The Muslims of Thailand.” in Lutfi Ibrahim. ed. *Islamika*. Kuala Lumpur: Sarjana Enterprise, 1981.
- Fatimi, S. Q. *Islam Comes to Malaysia*. Singapore: Malaysian Sociological Research Institute, 1963.

- Feith, Herbert. *The Declin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 Geertz, Clifford.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Gowing, Peter G. & Robert D. McAmis. eds. *The Muslim Filipinos*. Manila: Solidaridad Publishing House, 1974.
- Hall, D. G. E.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Macmillan, 1981.
- Harvey, G. E. *Outline of Burmese History*. Calcutta: Orient Longman, 1954.
- Hooker, N. B. *A Concise Legal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Majul, Cesar Adib. *Muslims in the Philippines*.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73.
- Mastura, Michael O. *Muslim Filipino Experience: A Collection of Essays*. Manila: Ministry of Muslim Affairs, 1984.
- Means, Gordon P. *Malaysian Politics*. London: Hodder & Stoughton, 1976.
- Milne, R. S. & Diane K. Mauzy. *Politics and Government in Malaysia*. Singapore: ISEAS, 1978.
- Noer, Deliar. *Administration of Islam in Indonesia, Monograph Series No. 58*.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 Pitsuwan, Surin. *Islam and Malay Nationalism*. Bangkok: Thaikhadi Research Institute, Thammasat Univ., 1985.
- Rosenthal, E. I. J. *Islam in the Modern National Stat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 Singh, Ranjit. *Burmei, 1839-1983: The Problem of Political Survival*. Kuala Lumpur: Oxford Univ. Press, 1985.
- Trager, Frank N. *Burma: From Kingdom to Republic*.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 Yegar, Moshe. *The Muslims of Burma: A Study of a Minority Group*.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